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다

● 영원 | 인터뷰

“길 잃은 외뿔고래가 흰 고래 무리에 속해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저는 그 외뿔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

올해 여름 공전의 히트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종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엄마인 태수미 변호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때 주인공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외뿔고래에 빗대어 설명한다.

왜 그 ‘긴 수염 있는 무슬림’은 미움 받아야 하는가?

누군가 이태원 우사단로 10번길 서울중앙모스크 앞 이슬람 거리를 처음 지나고 있다.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여기가 한국인가?’이다. 그렇게 외진 보광동 뒷골목을 오르다 수염을 길게 늘인, 눈이 깊고 부리부리한 무슬림 남자와 갑자기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본능적으로 흠칫 놀란다. 대부분 그러하니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 무안해 하지 않도록 태연한 척하며 태도의 매무새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은 그 ‘긴 수염 있는 무슬림’에게 마치 없어야 할 사람 처다보듯 날카로운 시선을 날린다. 실제로 쏘아볼 자신이 없더라도 상상으로는 이미 레이저 빔을 쏘았다. 왜 그 ‘긴 수염 있는 무슬림’은 미움 받아야 하

1. 2022년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16회로 방송된 ENA의 수목드라마이다.



▲ 모스크 골목

는가? 우승을 결정짓는 한국시리즈 7차전, 꼭 찬 홈 관중석에 홀로 앉아 있는 원정 팬을 보는 시선은 그나마 따져볼 만한 이유라도 있지 위의 것은 이유도 없다. 그냥 싫다. 구차하게 빌어 온 혐오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슬림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갹아먹는다’ 정도이다. 되묻고 싶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와 같이 이슬람 무장 세력이 일으킨 테러(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를 겪어 본 적이 있는가? 외국의 그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종교적 사태였고,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를 격하게 반대할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들과 무슬림들이 한 통속으로 여겨지는 것에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주민들 중 삼성이나 LG, 네카라쿠배² 또는 공무원이나 ‘사’자 직업을 목표로 구직하는 이를 만나본 적 있는가? 지난 5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마이너스인 반면 외국인 건

2.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ICT 5대 기업(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을 일컫는다.

보려는 흑자였다는 것³을 알고 있는가? 그냥 그 ‘긴 수염’이 싫다는 것 아닌가? 명분이 너무 설익었음에도 그들을 흰고래 사이에서 살아가는 외뿔고래로 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꺼이⁴ 싫어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 시선을 받은 그 ‘긴 수염 있는 무슬림’들이 느낀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외뿔고래라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다분히 개인적 체감지수에 따른 소견이지, 전문 기관의 자료나 설문을 근거로 한 평가는 아니니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치자. 코로나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230만 명이 넘는 체류 외국인⁵이 있고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변해 가는 과정에 발맞추어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용력도 자의든 타의든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집단을 종교와 종족 개념으로 이해한 한국 교회에 ‘한국 안으로 들어온 선교지’라는 선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선교의 지리적 경계가 가까워진 만큼 접근 방법도 과감해 졌고 빈도도 높아졌다. 이는 분명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당장 내년 해외 단기 선교로 지출하려던 항공료 예산의 타당성 설명이 조금은 궁색해 질 것이고, 비행기를 덜 타는 만큼 탄소 배출량⁶도 줄어들 것이다. 이 ‘새로운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심지어 초대도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다.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 가사인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하는 일이 수월해 졌다.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 중 부모가 수단인인 T는 얼굴

이 검다. 지중해 근동 아랍인 특유의 하얀 얼굴을 한 A도 있다. 로힝야 족 아이인 K는 예쁜 눈을 가졌는데 얼굴이 구리빛이다. 이들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온다. 그것도 매일 오후 1시 반이면 어김없이 온다. 더군다나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니까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최근 들어 이주민 사역을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가 많이 늘어났다. 만약 앞서 언급한 무슬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간격의 극복을 위해 무슬림 이주민들을 섬기려는 한국 교회의 도전적 접근을 적극 응원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무슬림을 대하는 한국 교회의 태도나 감정이 보편적 한국 사회의 기준보다 더 고약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폐쇄적이라고 한다면?

‘다국적 초대형 가족’ 이태원 센터

우리 가정이 파키스탄에서 돌아온 후 이태원 센터 사역⁷에 동참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2018년 7월, 무슬림 이주민 엄마들의 쉼터로, 아이들의 방과후 공부방으로 시작된 사역은 우리 가정이 함께하기 이전에 이미 단순한 돌봄 기관의 기능을 넘어 ‘다국적 초대형 가족’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덕분에 나는 매우 부드럽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에 안착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문화 교실을 운영하며 이주 여성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 주말 저녁이면 산 설고 물 선 이곳까지 흘러와 엄마, 아내, 여성으로서의 동병상련을 나누는 그들만의 사랑방이 되어 주었다. 학교

3. 권지담 기자(한겨레신문), “외국인 1명이 37억 건보혜택”...그들은 과연 손가락만 얹었나?, 2022/10/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3462.html?_ga=2.248054531.524890761.1668165180-945238048.1668165180

4.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

5.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 2021년 기준(요약) 장

기체류 1,569,836명, 단기체류 386,945명, 불법체류 388,700명.

6. 출처: SBS 포스트코로나(뉴노멀을 말한다), 김누리 교수 강의 내용 중 / 1km 이동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비행기 285g, 버스 68g, 기차 14g.

7. 센터의 사역이나 장소는 각각의 명칭이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센터’ 또는 ‘센터 사역’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온다. 숙제가 밀리진 않았을지, 언어 때문에 학습을 못 따라가면 어찌할지, 가정 통신문과 준비물은 잘 챙겼을지, 그런 우회(憂懷)는 센터의 선생님들이나 애달프게 하지 아이들은 마냥 즐겁다. 그래도 언제 젓살이 빠졌나 싶었는데 벌써 코밑이 거뭇해 진 사내아이들이 잔소리 없기도 전에 제 할 것 찾아 하거나, 살갑게 동생들 챙기는 걸 보면 거저 시간만 간 것은 아닌 듯하다. 그렇게 엄마와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토양에 건강하게 자리잡아 간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시작한 밀키트(meal kit: 포장된 간편 조리식) 판매 사업은 선교적 가능성을 확장 시켜주었다. 센터의 긍정적인 구심력에 끌려 함께하는 이들 중에는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없이 온 비기독교인들도 제법 있다. ‘환대, 존중, 나눔, 더불어 함께’라는 센터의 핵심 가치가 가져온 선물이다.

이제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기관, 특히 사역의 방향을 정하려 하는 이들이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모델을 우리 센터의 활동을 곁들여 제시하려 한다. 거리낌없이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인색한 한국인의 정서상 주제 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나, 단언컨대 이는 건방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응원이다. 이를 자신할 수 있는 건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님 내외분과 여러 봉사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진한지, 그 진한 나눔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진한 감동으로 되갚길 원하는 ‘다국적 초대형 가족’의 애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거룩함의 모델

구별되나 속해 있는 거룩

센터가 위치한 용산구에는 다양한 목적의 사회 사업 기관과 복지 관련 시설이 있다. 구청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법인이나 민간 사업 형태의 기관도 여럿 있다. 봉사하는 영역과 대상도 다양하다. 우리 센터와 같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봉사 하는 곳, 다문화 가정 자녀 또는 중도 입국 자녀⁸를 돌보는 곳, 교육 복지를 위해 수고하는 기관,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을 돌보는 곳, 이주 여성 쉼터, 용산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는 단체, 환경과 생태계 보호 단체, 법적인 지원이나 상담을 하는 단체도 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력을 하기 위해 운영되는 네트워크도 있다. 주제를 정해 워크숍을 열거나,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소개하기도 한다. 학교나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정부의 유관 기관과 교류하기도 한다.

물론 그 네트워크나 모임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의 대부분은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적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적 목적’에 의해 시작되었다. 쓰는 용어나 목적을 향해 접근하는 방법, 모임의 분위기 등도 당연히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 곳에 우리 센터가 너무도 태연하게 섞여 있다. 그들이 우리 센터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고 곤란함도 없다. 우리의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공통된 희망 아래 유기적으로 모여 있다.

8.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인정받는 우리 센터만의 독특함이 있다. 우리의 사랑과 나눔은 투명도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방과 후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어찌 그리 겸손하고 수평적인지 늘 감탄한다. 막상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냥 사랑스러워 서라고 한다. 다른 이들이나 기관의 헌신과 인류애가 우리 보다 덜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전문성, 조직과 시스템, 인력, 재정, 역사와 전통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보다 탁월한 곳이 훨씬 많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거룩함으로 세상에 배움을 준다.

혹시 아직도 “민지 앓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이 ‘세상을 떠나 그들과 격리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가? 아닐 것이다. 바울이 앞선 5장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는 용산구 이태원 보광동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린다. 대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좇아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나’ 철저히 ‘속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천적 거룩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확대하지 말

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장 2절, 10절, 33-34절)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레위기 19장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명은 종교적인 수사로 화려하게 묘사된 상징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나는 여호와이니라)을 반영하는 그 거룩함은 ‘철저히 실제적이고 사회적이며 대단히 현실적’이다. 그 거룩함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종교적 독특성을 지키기 위한 규례에서부터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사회적 태도, 경제 원칙이나 법, 도덕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폭 넓다. 레위기의 서술에 의하면 우리의 거룩은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될 수 있다. 그 중, 우리와 함께 있는 외국인 이민자(거류민)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거룩의 실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태원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을 ‘우리 중에 낳은 자 같이 여기고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레 19:34)’은 여호와와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이다.

한대와 수용의 모델

한대의 이유와 수준

한국에는 전쟁이나 재난, 정치적 이유로 고국을 떠나 인도적 체류 자격(비자 타입 G-1)¹⁰ 등 불안한 비자 상태로 머물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다. 기본적인 보호도

9.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H. Wright),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MP, 2012), 176.

10. G-1 비자: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들의 출국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의료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 보장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단순 노무직 등에 한해 취업할 수 있지만 매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지위와 상황은 그들을 더 깊고 짙은 그늘로 몰아간다. 또한, 무슬림 이주민들이 겪는 낯선 시선은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다. 우리의 인식이 더딘 사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래서 사명(Vocation)으로 이미 다가온 이들도,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더 이상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물거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사도행전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한 사도를 새로 세울 때, 말씀을 선포하던 기존 열두 사도의 사명과 같은 경증으로 임명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을 흘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필요한 이들에게 복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며 당연하다. 그럼 어느 만큼 나누어야 하는가?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셈이 빠르고 정확하다. 생일 케이크의 초가 꺼진 후 칼을 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고 가급적 홀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나눠셈’이 아니다. 세리와 죄인을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이란, 앞에 놓인 빵을 같은 크기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빵 바구니를 다른 이에게 열어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은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존중과 공감에 필요한 ‘새로운 가족’이다.

수용의 이유와 수준

아이들이 방학을 하는 여름에는 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그 중 올 여름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떠난 서해 바닷가 소풍이었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코 끝이 쌀쌀해진 지금도 종종 그 때의 소소한 추억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있고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소풍 출발 전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다. 십 년 가까운 파키스탄에서의 생활 동안 확실히 알게 된 이슬람 문화 중 하나는, 남녀가 같이 하는 활동은 자칫 큰 오해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간 남자가 엄마들이 머무는 곳에 오랜 기간 있어야 한다면 가정의 권위를 가진 가장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식이라 표현하지 말자. 또 남녀 차별이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아무리 세대가 변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식탁에서 어른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까지는 침만 삼키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그 염려 때문에 센터 대표님에게 내가 그 소풍에 함께 가도 될는지 가족의 아버지들에게 허락을 받아 달라고 부탁 드렸다. 며칠 후 그 소풍에 함께 가는 한 엄마에게 내가 소풍 가는 것에 대해 대표님이 남편과 이야기 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엄마의 표현이 나에게 몽클함을 주었다.

“남편이 ‘H(대표의 이름)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인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어요.”

이 글을 쓰며 ‘가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가져왔다.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가끔 그러다. “이 센터 없었으면 우리 어디에 가 있을까요?”라고. 이 아이들이 말하는 ‘센터’는 흔히 공동체를 설명할 때 상투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의 ‘가족’이 아니다. 이태원 센터라는 ‘다국적 초대형 가족’은 말 그대로 가족이다. 무슬림들에게 가족으로 수용이 된다는 것은 삶을 나누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단계이다.

총체적 선교의 모델

센터 사역 중 이주민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시작한 작은 사업이 있다. 2019년 겨울 어느 날, 생활고에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며 찾아온 한 엄마의 딱함이 모터브가 되어 출발한 사업이다.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으

로 판매하는 것인데,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의 자립을 돕는 소셜 벤처이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생긴 수익 전액은 생산에 참여한 여성들과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만 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주민 여성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예상치도 못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총체적 선교의 모델이 된 것이다.

잠깐! 온라인으로 밀키트 몇 개 팔면서 감히 '총체적 선교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인가? 그 정도 중량감 있는 단어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한 민족적 회복 정도는 되어야 어울리는 것 아닌가? 그러나 감히 맞다. 총체적 선교 모델이!

사회적, 관계적인 회복

이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정기적인 경제 활동을 하며 스스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스로를 소외된 '외뿔고래'라 여겨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 '안'에 살지 못한 이들에겐, 어쩌면 사회적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한국 국경을 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 것 보다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사업장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이곳에 오는 봉사자들이나 손님들은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종교 활동(기도하기, 금식월 지키기, 꾸란 읽기 등), 음식 제한 등에 개의치 않아 했고, 그 선한 무관심이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름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여 흘겨 보

는 시선이 느껴지더라도 '다름'이 '잘못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

복지적인 회복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보통 G-1비자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의료,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의료 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가을 한 엄마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의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고 했다. 또한, 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민간 기관, 기업체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결해 준다.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변동 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 이주민 가정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 센터가 이를 돕는다. 언어가 서툰 외국인이 자신의 자녀를 낳은 나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라. 나라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은 부모라면 모두가 애달파 하는 영역인데, 센터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가 되어 주고 있다.

돈만 내면 가입이 되는 의료 보험이, 한국에 거주만 하면 받게 되는 지원이,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높이의 제도적 장벽이다. 이들이 센터를 통해 복지¹¹라는 낮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초대되는 것은 큰 회복이다.

심리적, 감정적인 회복

센터의 봉사자 분들 중 이주민 여성들이 친정 엄마처럼 따르는 권사님이 계신다. 하루는 이곳에서 일하는 한 엄마가 권사님에게 자기 고향의 전통방식으로 만든 빵을

11.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와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모두를 말한다.



▲ 모로코 빵과 차

드렸고, 권사님은 너무 고마워하며 드셨다. 그리고 맛이 어떠냐는 그 엄마의 질문에 너무 맛있다 답했더니 다음 날 또 빵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 빵을 건네는 그 엄마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있었다. 그동안 이곳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미소, 또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베풀의 미소다.

고국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몇 해를 한국에서 살았어도 감정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이다. 사업장에서의 활동은 본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볼 여유를 찾게 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우울해 하던 이들도 이제는 심리적으로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들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 그 여유가 가져다 준 빵 선물은 '감정적인 회복'의 표현일 것이다.

영적인 회복

무슬림들은 유일신을 믿고 이에 대한 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환

경은 신을 경외하던 본성도 무너뜨렸다. 그러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찾는 감성과 영적인 갈급함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

“이곳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받은 사랑과 축복은 분명 하늘에서 온 것이예요.”

작년 8월 어느 날,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한 모로코 이주 여성의 딸이자 사업장의 마스코트인 B의 돌잔치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멋진 축하 파티를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B엄마의 고백을 통해 이 가정이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또 고통 속에서 찾은 희망에 감사해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어 큰 감격이었다. 센터 대표님이 창세기 16장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서 겪게 된 고통 그리고 약속과 축복에 대해 나누었는데, 이 곳에서 일하는 무슬림 여성들에게도 친숙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인데다 자신들의 처지와 하갈이 처한 상황이 대비되어서인지 매우 뜻 깊어 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든, 꾸란에서 본 이야기이든, 우리의 삶에 투영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 진정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다. 그 복음이 어디서 드러나고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질고 껄뽀하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서 계획되었던 모든 할로윈 행사가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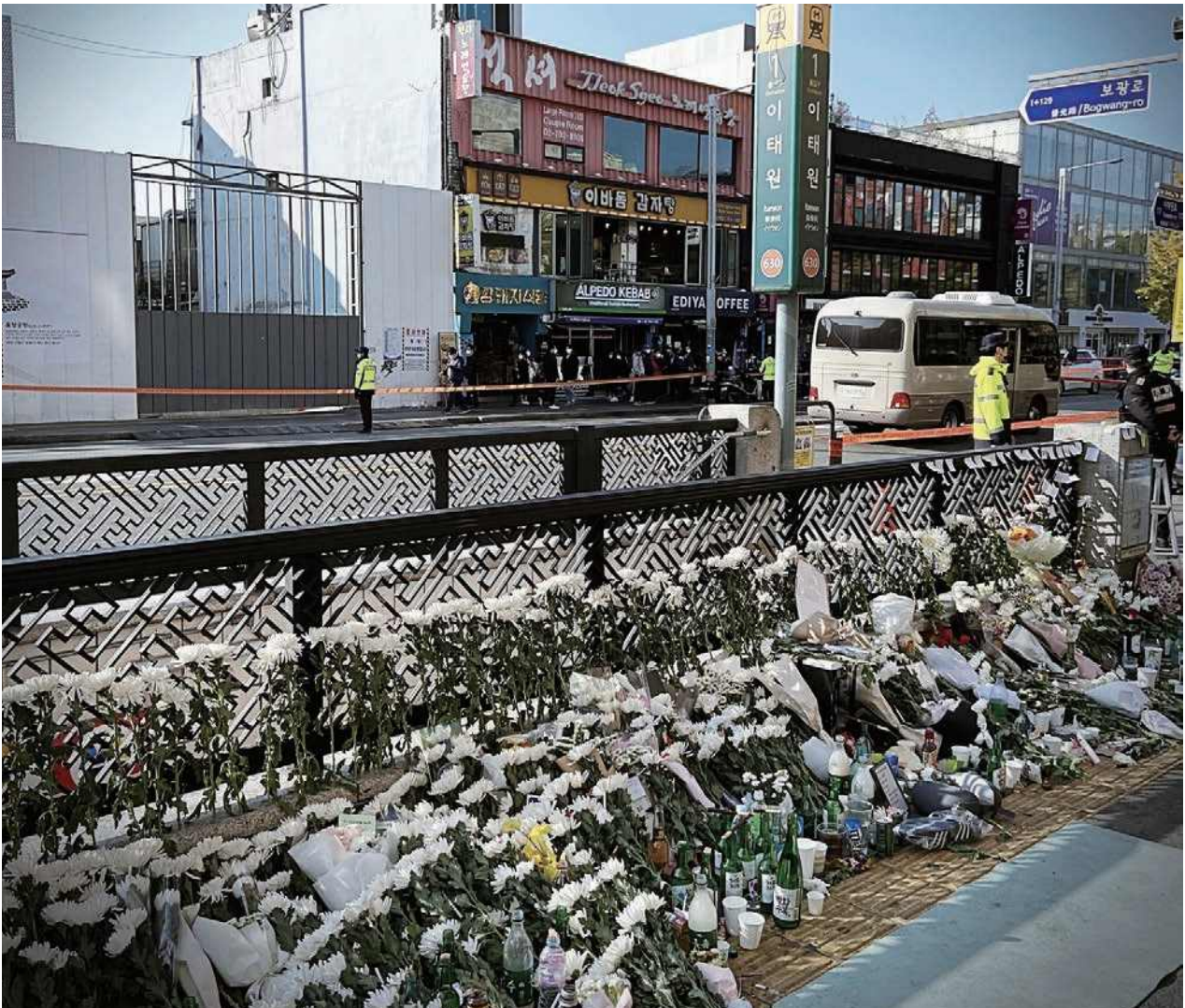
센터로 가려면 이태원 역 3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역사 벽에 붙어 있던 안내문이 '1번 출구'로 향하게 했다. 출구 난간 앞, 하얀 국화꽃과 함께 주저 앉아 있는 비통함

과 허망함은 씻겨 나가기 힘들 듯 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태원의 늦은 10월’은 어느 누구도 원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슬픈 상처 때문에 지독하게 아팠고 여전히 아프다.

마음이 무거워 이번 참사에 관한 뉴스를 가끔씩 보지 않으려 했음에도 눈길을 멈추게 한 뉴스의 댓글이 있었다. 이번 참사가 ‘죄의 결과’라는 요지의 글이었다.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분명히 말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결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쓰러져 있던 그들에게 죄를 따져 묻는 이들이 있다. 참 모질고 괴씸하다.

“그들이 문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7)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누구든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 된 자신을 먼저 힐책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추하게 가객의 경중을 따져 들며 나는 덜 하다 말하려는가?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까?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수가 여인을, 죄로 여겨지던 질병 때문에 성 밖에 살아야 했던 열 명의 나환자들을, 내팽개쳐진 채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던 그 음행한 여인을, 감히 우리가 돌로 칠 수 있을까? 그들을 보듬고 있는 예수님의 등짝을 향해?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서쪽 끝 아체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30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슬람을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했다. 무슬림을 죄인이라 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 교회는 모질고 괴씸했다. 이십여 년 가까이 지나며 무슬림을 대하는 교회의 시각이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8년 500명 조금 넘는 예멘 입국자들이, 작년 8월 400명 조금 못 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¹²⁾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을 반기는 한국 교회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라가 망해 떠난 아프간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맞이했던 충북 진천 주민들의 모습과 대비되었다. 지금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둘러싼 갈등들을 보라. 그 갈등 중 종교 혐오라는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는가? 입으로 토해내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그 긴 수염 무슬림을 향해 한국 교회는, 외뿔고래 정도로 여긴 초행자보다도 더 모질고 괴씸하게 정죄를 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대, 존중, 나눔, 더불어 함께

한국 교회가 계속 모질고 괴씸한 것이 불편한 이들에게, 무슬림을 향해 던지는 우리의 시선이 정의롭고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는 이들에게 희망을 건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금방이라도 내리치려 했던 돌 들린 오른손의 바들거림이 더 이상 명분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돌이 엮드려 있던 여인을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사실은 그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절실하다는 것을 안다. 그만 모질고 괴씸해도 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소외된 이들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의 사랑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가르친 스승의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 있게 실천해도 된다. 환대, 존중, 나눔,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더 없이 사랑해도 그 사랑은 남는다. 우리에게겐 세상을 바라볼 때 종교라는 안경이 하나 더 있다. 그만큼 빛의 스펙트럼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종교인의 시각으로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를 볼 때 특이할 수도, 또 유별나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한 그 모든 이름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 이름은 귀하고 눈이 부실 것이다. 특이하고 유별난 한국의 무슬림들이 귀하고 눈부신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영우의 외뿔고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

12.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378명 중 절반 가까운 180여 명은 10살 이하의 어린이였다.